

두산인문극장 2017: 갈등 Conflict

[강연] 우리 시대 갈등의 종단면과 횡단면

백태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후 미국 노틀담 대학교로 유학해 국제인권법을 공부하여, 2001년 법학석사학위(LL.M.)를 받고, 뉴욕 주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동 대학원의 국제인권법박사학위(JSD)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비지팅스칼라로 연구하다 2003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2011년부터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부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 박사(SJD)과정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국제인권법과 비교법, 아시아 인권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보내드리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 갈등의 종단면과 횡단면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불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 속에 갈등의 본질이 들어 있다.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면 아무 변화가 없었을 텐데, 색(물질)이 더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갈등은 어쩌면 인간의 원초적 존재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 인간 내에,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 갈등의 구조가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과 국가, 국제사회를 가르는 심각한 분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 그런 분쟁을 해결하며 공존하고 상부상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회적 존재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된다. 공과 색의 길항 작용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실존적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현실 속에서 세상과 맞서며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공존과 변화,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다.

인간은 실존적이면서도 사회적 존재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한 인간은 사회 속에서 일정한 위치와 지위로 자리매김 되고, 노동자로서 또는 사회적 기능인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가 부과하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자 하나 여전히 그 굴레 속에 존재하며 투쟁하고 있다.

갈등은 그 해결을 위한 투쟁을 수반한다. 계급과 계층의 극단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미국 베트남 전쟁기의 68세대가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극심한 세대 간의 갈등이 전개될 수도 있으며, 흔히 말하는 오타쿠처럼 한 인간의 자아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자기 분열될 수도 있다. 갈등은 우리 시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도하는 도전이고 그에 대한 인문학적 답변을 내놓는 것은 피할 수 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주요 논의 내용

- 오늘날 갈등의 원천들
- 냉전 이후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갈등의 부상
-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재편과 갈등의 심화

-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
- 갈등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상황들
-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중요성

인간의 근원적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는 인권(human rights)은 개인적 안전을 강조하는 보안(security)과는 차이가 있다. 자신에 대한 수세적 방어를 넘어서서,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진정한 개인적·사회적 평화를 확대해 가는 것이 인권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길 속에서 인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인권의 보장은 그러한 변화를 위한 운동 속에서 가능해진다. 인권은 인간 사회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규범이기를 지향한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인권이 각각의 사회가 갖고 있는 구체적 특수성을 배제한 개념이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인권은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특수성을 담아내야 하며, 고정 불변의 가치가 아니라 변화 발전 과정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대를 배제하기 위한 작용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포괄하고 변화시켜 내는 운동으로서의 인권, 인권 규범, 인권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느리지만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아시아의 국제정치 상황에도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이제 아세안 지역을 아우르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이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나아가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미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18개국의 정상이 매년 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는 장이 되고 있다. 나는 아시아의 미래를 여는 지역 차원의 협력과 통합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정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통합의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인권 기구가 그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는 지역 인권기구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 협력기구가 제대로 자리잡을 때 유럽의 타자로서만 존재했던 아시아가 스스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도 인권이 보장되는 정치·경제·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 속에서 현실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 연대를 보내고, 그 대의를 공감하고 싶어 한다.

나는 한 인간이 갈등 속에 던져지고, 그 속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하며 미래를 모색하는 고투를 벌이는 것, 갈등 현장 속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동력이라고 믿는다.

갈등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갈등의 지양을 위해 노력할 때 현실은 생명력을 갖는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현실의 일원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고 노력할 때, 특히 서로의 긍정적 사고를 함께 나눌 때 가능하다. 이 세상에 던져진 실존으로서 지금 우리는 자신을 다시 던져야 한다.